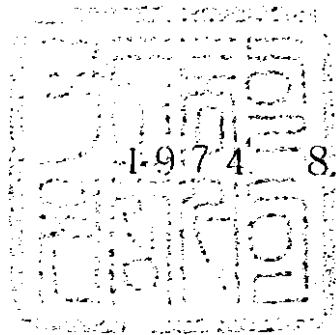


北韓의 言論統制政策에
관한 研究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8.

研究機關：京 鄉 新 聞 社
研究責任者：鄭 男

目 次

I. 序 論	3
II. 北韓「매스콤」 現況分析	4
가. 北韓「매스콤」의 概念	4
나. 北韓「매스콤」의 特色	12
다. 北韓「매스콤」의 機構	19
III. 北韓의 言論政策	48
가. 基本方向 및 目標	48
나. 北韓의 「매스콤」 통제 정책	50
- 統制方法	50
- 統制樣相의 變化	54
IV. 우리의 對備策	58
問題點 및 對備策	58

I. 序 論

本研究의 目的은 北韓社會에서의 言論이 가진 特性과 機能을 分析하고 그들의 言論이 어떤 統制아래 움직이는지를 알아 보는데 있다.

그들의 言論을 알아보기 爲해서는 于先 共產主義와, 言論의 關係를 把握할 必要가 있다. 共產主義아래서의 言論은 自由陣營과는 달라 100% 黨과 國家(內閣)의 統制를 받고 있다.

北韓의 言論은 그 模型을 蘇聯에서 가져온것은 다이는 事實이다. 北韓의 言論은 自由競争을 生命으로 하는 南韓의 言論과는 그 發生過程이나 基本性格이 判異하게 다르다.

資本主義 社會에서 言論의 生命은 迅速 正確한 뉴스의 報道와 이에 對한 論評을 生命으로 하고 있으나 共產主義體制아래서의 言論은 黨의 宣傳과 理論을 大衆에게 教化하고 그들을 組織化해서 「프로레타리아트」 獨裁社會를 造成하는데 있다.

現在 北韓의 新聞, 放送, 通信, 雜誌等 모든 言論手段은 內部的으로 는 北韓의 金日成唯一思想을 北韓住民들에게 注入하고 그들의 體制가 地上 最大의 樂園임을 反復해서 宣傳하는데 있다. 또 對外的으로는 北韓社會主義體制的 優越性을 宣傳해서 獨極的으로 國際輿論을 그들의 對南赤化統一이라는 至上課業에 有利하게 誘導하는데 있다. 따라서 北韓의 言論機關은 南韓에 對한 誹謗을 하거나 虛偽事實을 捏造해서 大韓民國 政府와 國民을 이간시키는데 主力태 온 것도 事實이다.

本 研究의 目的은 北韓當局이 如何히 그들의 言論을 統制하고 있는가를 研究하고 이에 對한 우리言論의 對備策을 마련, 그들의 宣傳이나 煽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II. 北韓의 「매스콤」 現況 分析

가. 北韓 「매스콤」의 概念

A. 共產主義言論의 概念

蘇聯을 위시한 各國 共產黨들은 現在까지도 「레닌」의 新聞에 對한 말을 指針으로 삼고 있다.

「레닌」이 「프레하노프」에 의해서 定義된 宣傳과 煽動의 概念을 支持하고 「말떠노프」가 「레하노프」의 概念을 批判한데 對해 날카롭게 批判한 事實이 있다. 經濟學者인 「말떠노프」의 宣傳煽動 概念에 對한 「레닌」의 批判은 單純히 理論鬭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眞意는 卽當時의 狀況속에서 把握되어야 한다.

「레닌」은 經濟主義者派에 對한 批判을 그것이 바로 새로운 組織을 構成하는데 가장 重要한 武器로 삼았다. 그 武器가 바로 Iskra (이스크라=불꽃)였다. 이 武器는 理念의 核心을 論할뿐 單 아니라 이로서 몽친 信念分子들을 黨의 組織中心部로 만들어 낼수 있었다.

이런 理由때문에 「레닌」에 있어서 宣傳과 煽動의 窮極的인 主体는 黨이었다.

黨만이 「러시아」大衆에게 적은 經濟的 利益을 넘어서 政治革命이라는 一政目的을 따라가게 할수 있다고 믿었다.

「레닌」의 이같은 立場은 첫째 經濟主義者와의 싸움에서 勞動階級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야 했고 둘째로는 職業革命家들로 構成된

당이 歴史的으로 必然的이며 不可避했다는 것은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背景에서 「레닌」의 宣傳과 煽動에 對한 概念区分을 要素別로 보면

煽 動	宣 傳
<p>하나의 理念을 對象으로서 大衆에게 (繼統的이 아니더라도) 說明하고 격분을 刺戟한다. (正 感情的으로) (正 정박하고 實例에 立脚해서) 口頭로 한다.</p>	<p>여러가지 理念을 몇몇사람들에게 (繼統해서) 說明하고 必然的으로 社會主義 社會에로 變해가는 理由를 밝힌다. (正 理論的으로) (正 原則的으로) 印刷物로 한다.</p>

이와같은 区分은 그 自体가 벌써 하나의 目的을 爲해서 새로이 宣傳과 煽動의 범주를 選擇할수있게 되어있고, 同時에 宣傳과 煽動이 어떤 潛在的인 機能을 가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레닌」은 이것을 가지고 그의 競爭者인 經濟主義者들과 싸웠다. 그는 經濟主義者들이 日常의 經濟問題만을 問題삼게 됨으로서 (煽動의 概念), 重要한 政治鬭爭(宣傳)을 等閑히 한다고 非難했다.

「레닌」 自身の 表現을 빌린다면 「이와 같은 自由와 社會主義를 爲한 鬭爭」이 「修正을 위한 鬭爭의 下位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블레비카」黨 執權以後 大量 「코무니케이션」手段의 發展이 이루
 된 環境속의 어도 「레닌」의 区分이 適用되기는 이외에 實情이다.
 煽動을 口頭로 한다는 區別은 非現實的인 것이기는 하였지만
 이와같은 環境속에서 「레닌」이 宣傳의 媒介物을 印刷物로 하고
 문이었다.

은 주로 口頭로 宣傳하고 少量의 「판프렛」만을 使用할 수 있을
 大衆의 政治意識을 覺醒시켜야만 했다. 地方에서 「레닌」主義者들
 「이스크라」는 煽動과 組織의 機能을 同時에 가졌다. 그러면서도
 할 수 있다.

졌을때 「레닌」의 「이스크라」만이 可能的 唯一組織이었음을 理解
 을 激化시켰음뿐 아니라 過激分子에 對한 警察의 搜索도 가혹해
 였고 있었다. 거기에서 露日戰爭에서의 敗北는 以上과 같은 危險
 서 勞動條件은 漸次 惡化一路를 걸었으며 罷業危險은 눈앞에 다가
 獨의 業체가 操業을 中止하고 失業者數는 10萬을 넘어서고 따라
 今世紀初의 「로시아」의 事態는 그야말로 混亂의 극이었다. 3千
 는 過程에서 支配의 가장 本格的인 道具가 되었다.

도 適用되었다. 이로써 宣傳과 煽動은 「블레비카」支配가 正確되
 命化를 爲한 操作原理가 되었음뿐 아니라 黨內的으로는 幹部訓練에
 이 原則은 1971年 以後에 外지는 더욱 擴大되어 一般大衆의 革
 것이었다.

있을수 없는 것이었고, 宣傳과 煽動은 同一目的을 爲한 爲해 存在하는
 「레닌」에게는 이와같은 革命的行動에 있어서의 分裂은 理論적으로

「레닌」도 後에 가서는 그의 煽動, 宣傳의 概念区分을 實質적으로 修正하는 方法을 했다. 그는 1912년에 「新聞은 選舉運動의 重要道具이다. 그것은 「맑스」主義的 大衆人口 등의 主要手段이다. 合法的으로 發刊되고 있고 또 「맑스」主義精神에서 經營되고 있는 모든 「러시아」의 新聞들은 現時점에 있어서는 党的 煽動事業과 關聯해서 볼때 「로시아」社会民主主義的 勞動階級의 가장 重要한 公的 發言者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事實은 「레닌」이 宣傳과 煽動을 区分하는데 있어서 말로 하는 것과 印刷物로 하는 것이라는 差를 基準으로 한다는 것이 本質的이 못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스타린」時代에 있어서 党的 宣傳과 煽動의 問題는 主로 党内問題로서 부각되었다. 「스타린」自身이 党幹部의 敎養이 党的 生死를 左右하는 問題임을 強調한 일이 있지만은 이때부터 党内煽動과 党内宣傳이라는 概念이 登場하게 되었다.

1948年 發行된 冊子에서 보면 「党内宣傳은 共產主義者인 우리幹部들에게 「맑스·레닌」의 理論으로 武装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黨員들에게 社会發展과 政治鬭爭의 法則에 관한 知識으로 武装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同時에 黨員들이나 党에 加入하고있지 않는 「불쉐비키」들의 警覺心を 提高시키는 것이다」

煽動은 이와는 달리 「人民들 「이데오로기」的으로 政治적으로 敎育하는 가장 重要한 道具이며, 党과 大衆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手段이며 勞動大衆에게 党的 政策을 說明해 주는 가장 重要한 方

法이며 그들을 党과 「쏘비엣」 政府의 決定과 호소를 充足시켜 주기 爲해 動員하기 위한 手段이기도 하다」

그러나 1951年 發刊된 다른 冊子에 依하면 이점은 더욱 強化되어서 煽動은 大衆에게 党的 政策과 그때 그때의 具體的인 解決方案을 說明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에 相當한 行動을 취하게끔 動員하는 問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있다.

事實上 이와같은 정도가 되면 煽動과 宣傳의 概念区分은 극히 애매한것이 되고 만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蘇聯共産黨을 위시해서 各各 共産黨 特히 北韓의 共産黨이 아직도 「레닌」의 煽動과 宣傳의 概念区分에 執着하고 있는 事實은 그들의 理論과 變化된 情勢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結論的으로 共産主義支配 아래 言論이란 事態에 따라 解決해야 할 일의 性質에 따라 啓蒙의 質的, 量的 手段이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 宣傳을 할 것인가 煽動을 할 것인가가 決定된다. 그러므로 宣傳과 煽動은 범주가 다른 概念이 아니고 兩者간에는 언제나 하나의 共通된 領域—革命課題—이 있다는 것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B. 共産主義와 言論自由

共産主義는 西方의 言論은 一部 資本家들을 自由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혹평을 하고 있다. Hegel 思想의 影響을 입은 「칼. 맑스 레닌」은 「言論의 個人所有와 言論自由는 兩立할 수 없으며 資本家の 所有 아래 言論이 있는 한 참다운 言論自由라는 것

은 하나의 속임수에 不過하다 〃 고 主張한바 있다.

또 「유엔」第5次 經濟社会理事会에서 한 蘇聯代表는 〃 效果的인 言論自由를 누리기 爲해서는 現代의 情報는 高度의 複雜적이고 技術的인 手段(機構)에 依해 統制되어야 하며, 言論統制에 必要한 機構가 公有財産이 될때 人民의 效果的인 言論自由를 누릴수 있다 〃 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蘇聯代表는 〃 참다운 自由言論이란 어떤 것인가 〃 에 대해 〃 言論自由의 目的은 「뉴스」를 交易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明確하게 達成하기 爲해 黨의 完備한 指導아래 巨大한 勞動者를 敎育하고 組織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Lenin은 1918년에 〃 우리는 大衆의 經濟的인 再敎育을 爲해 言論의 機能을 바꿔야 하며 共產主義体制아래서 言論은 無산계급의 參謀인 共產黨의 完全무결한 統制아래 共產主義 目標를 實踐하는 道具가 되어야 한다 〃 고 말한바 있다.

이와 같은 共產主義 指導者들의 言論觀을 分析해 볼때 共產主義의 言論機關은 政府의 한 部分이거나, 公共機關에 依해 運營되고 있으며 그結果 自由競争을 生命으로 하고 있는 自由陣營의 言論이 非組織的인데 反해 共產主義의 言論은 計劃되고 組織化된 強力한 힘을 發揮할 수 있다는 것이 特徵이다.

또 言論自由에 對해서 共產主義者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西方新聞들은 〃 共產主義 言論은 政治的自由가 없다고 批判하지만 共產主義 理論家들은 西方新聞들은 經濟的 自由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

Uyshinski 는 1938 年에 London Times 는 가장 큰 鐵道会社와 保險会社를 갖고 있는 Lloyd 銀行의 重役들을 통해 影響을 받고 있는 銀行의 한 組織 * 이라고 비난하고 * 西方신문은 자본가들에게만 自由스러울뿐 * 이라고 갈파하고 * 진정한 言論自由는 힘써 일하는 大衆의 진정한 意見을 자유롭게 出版하는데 있다 * 고 말한바 있다.

위에서 보듯이 共產主義와 資本主義의 言論自由에 對한 概念은 判異하게 다르다.

따라서 北韓의 言論도 共產主義 言論의 一般的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北韓의 言論은 그들의 立場에서 보면 言論自由가 있다고 할지 모르나 우리의 理論으로 볼때 言論自由는 絶對로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 . 北韓의 言論概念

「레닌」以後 共產主義 言論이 政治鬭爭의 手段, 宣傳, 煽動組織으로 認識된 것과 같이 金日成의 治下의 北韓言論도 이 처럼 認識되어 왔다.

또 北韓共產黨은 모든 言論機關을 철저히 独占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에서는 自由世界에서 처럼 言論이 情報나 報道를 뜻하는 意味로서의 概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北韓의 言論概念을 살펴보기 위해 金日成이 1962年 3月8日 勞動黨 4期 3次 全黨會議에서 行한 演說을 紹介해 본다.

「宣傳部の 첫째 任務는 黨員들을 教養하는 것입니다. 宣傳部는 이미 病이난 사람들에게 藥을 지어줄뿐 아니라 黨員들이 나쁜 思想에 몰든지 않고 언제나 革命謀業 遂行에서 積極性을 내도록 予防藥과 보약을 주어야 합니다. 幹部들에 對해서는 教養事業을 더 해야 합니다. 幹部들은 「맑스·레닌」主義 理論과 黨政策을 더 깊이있게 알아야 하며 共產主義思想으로 더욱 튼튼히 武裝해야 합니다」 여기서 金은 確實히 「스타린」의 党内宣傳의 立場을 취하고 있고 同時에 言論의 煽動과 宣傳의 概念도 区分하고 있다. 「어떤 동무들은 煽動하는 演說을 한마디하고 映画나 하나 돌리는 宣傳事業을 다한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煽動事業이지 宣傳事業은 아닙니다.」

宣傳部에서 둘째로 重要한 事業은 煽動事業입니다. 煽動事業도 前일률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時間과 條件, 革命任務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宣傳煽動部는 幹部들과 黨員들을 「맑스·레닌」主義式으로 事物을 分析하고 問題를 풀수 있도록 教養하여야 하며 그들은 언제 어떠한 風波속에서도 黨의 任務를 어김없이 貫철하는 革命家로 키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重要한 任務입니다」

北韓의 煽動과 宣傳의 概念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政治用語 事典을 보면 잘 整理되어 있다.

「宣傳은 黨 思想事業의 한개 形式으로서 黨員들과 勤勞者들을 경
애하는 首領 金日成同志의 교시와 그 具現인 黨政策으로 教養하는
重要한 手段이다. 煽動이 宣傳과 다른點은 일정한 真理를 주로
理論的으로 把握하는데 있다. 따라서 宣傳은 煽動에 比하여 알리
려고 하는 內容의 理論的深度가 보다 깊고 論理的이며 体系的이다.
宣傳은 口頭, 出版物, 「라디오」 및 其他 手段들을 通하여 進行된다. ...

「煽動은 大衆性을 띠며, 소기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 大衆들에게
주려고 하는 內容의 本質을 호소의 方法으로 傳達, 解說하며 그들
을 動員하고 고무, 추종하는 것을 그 特徵으로 한다. ...

煽動은 講演談話와 같은 口頭의 方法으로나 또는 出版物, 「라디오」
와 같은 手段들을 利用하여 進行된다.

煽動事業은 時間과 條件, 革命任務에 맞게 다양한 形式과 方法으로
進行하여야 한다. 北韓은 「레닌」이 口頭와 印刷物을 各各 煽動
과 宣傳의 手段으로 区分했던 矛盾은 처음부터 범하지 않고 있으
며, 印刷物이 煽動이나 宣傳의 어느 手段에도 쓸수 있도록 金日成
의 万能策으로 되어 있다.

나. 北韓 「매스콤」의 特色

A. 北韓 新聞의 特色

北韓의 「매스콤」은 完全히 勞動黨과 內閣의 統制아래 놓여
있다.

北韓의 新聞은 黨의 機關紙로서 6.25 事變後 人民勞力과 強制動員

의 旗手役割과 思想 및 政治的 교화, 事業의 媒介手段이 되어왔다.

金日成은 新聞을 全体 黨員과 勤勞大衆에게 階級敎養과 革命傳統 등 政治敎養事業을 強化하고 社會主義 模範을 創造하는데 活用할것을 強調해 왔다.

뿐만 아니라 新聞을 통해 對南宣傳을 強化하는데 注力해 왔다.

특히 南韓에 對해 전깃불이 없고 서울은 거지가 득실거리고 建築物이 없을뿐만 아니라 판잣집밖에 없다는 등 虛偽 捏造된 記事를 掲載 報道함으로써 北韓体制의 能率性과 優越性을 北韓 住民들에게 심는데 注力해 왔다.

또 北韓의 新聞은 政府나 「뉴우스」報도의 性格을 全혀 갖지 못하고 있다.

北韓新聞은 社會面이나 經濟面, 文化面 등 다양한 內容의 우리新聞과는 달리 우리의 觀點에서 볼때 無味 건조한 宣傳 「팜프렛」에 불과하며 社會面이 없는것이 特徵이다. 北韓新聞에 社會面이 없는것은 模範的인 內容만 選擇 造作 또는 誇張하여 社會主義社會에는 社會惡이 完全 根絶된 印象을 주고, 北韓住民에게 가혹한 宣傳을 強要하기 위해서이다.

또 「뉴우스」에 紹介되는 人物은 偶像화된 金日成이나 一部 集團 農場 또는 工場의 職工을 英雄으로 분장시켜 報道하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

또 北韓 新聞은 經濟性을 전혀 考慮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新聞과는 달리 廣告欄이 없으며 新聞記事도 우리와는 달리 대부분

党和 内閣의 統制와 檢閱을 받아 作成된 中央通信의 記事를 전체 하고 있으며 一部는 勞動黨의 指示에 依해 作成된 宣傳用 記事로 채워지고 있다.

北韓 新聞의 紙面別 記事를 分類해보면 1面은 金日成의 演說文과 談話文 北韓內閣의 施策, 指示 또는 各種大會의 進行 消息이 揭載 되고 있고 2面은 1面에 이어 重大施策이나 共產主義 教養 및 黨 宣傳으로 채워지고 있다.

또 3面은 南韓의 社會像을 歪曲해서 揭載하거나 黨이 造作한 模範的 記事를 紹介하고 있으며 第4面에는 共產圈 特히 蘇聯 中共 등 共產主義 世界와 一部 中立國家들의 記事를 紹介하는 國際 「뉴우스」로 채우고 있는데 대부분이 北韓에 有利하도록 각색 揭載하고 있다.

記事內容을 보면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金日成 偶像化에 관한 內容이며 勞動黨의 革命傳統 繼承에 관한것과 黨政策의 宣傳 및 實踐의 促求 千里마운동, 청산리方法, 大安事業體系 등 經濟建設을 強要하는 記事와 對南政策의 일환으로 南韓에 對한 惡意에 찬 宣傳이나 虛偽事實과 그들의 統一政策의 정당성을 主張하거나 反美煽動 駐韓美軍의 撤収를 主張하는 記事와 金日成의 축전 또는 外交使節迎接 등의 記事 등이다.

또 記事分布 狀況 (勞組新聞 68年2月)을 보면

(1) 政治 및 宣傳 (16.4%)

(2) 對美惡宣傳 (13.6%)

(3) 增産強要(11.6%)

(4) 對南惡宣傳(10.4%)

(5) 外交(9.8%)

(6) 技術教養(9.1%)

(7) 産業經濟(8.4%)

(8) 思想教育(7.6%)

(9) 文化藝術(5.9%)

(10) 體育(4.6%)

(11) 軍事(3.3%)

(12) 其他(0.3%) 등으로 되어있다.

北韓言論機構의 基本特徵은 세 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黨機關紙는 黨의 統制監督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新聞의 組織機構는 黨이나 內閣의 行政階位構造와 平行 또는 重複되고 있다.

黨部가 있는 全行政單位 즉 平壤을 비롯해서 18個 市黨部, 38個 區黨部 163個 郡黨部 1個區 163個 邑 4,179個 里洞 166個 勞動者區에는 黨機關紙가 教養 및 行動指針으로 配付된다.

둘째로 北韓住民을 唯一思想으로 囑쳐 金日成의 支配아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職業層別 地域別 特殊新聞들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行政階位組織과 連結을 가지면서 黨의 統制를 받게끔 組織되어 있다.

于先 北勞黨中央委員會 機關紙 「勞動新聞」이 最高의 方向提示 新聞으로 있고 이와 平行해서 內閣 및 最高人民會議 機關紙인 「民主朝鮮」이 있다.

「勞動新聞」이 影響力이 가장크고 權威紙이며 「民主朝鮮」은 行政系統과 行政單位로 配布되는데 勞動新聞은 3千個가 넘는 國營 및 協同團體工業企業所 4千個가 넘는 協同農場, 農機械作業所 國家農牧場은 勿論 各級學校에까지 配付되고 敎養室에서 日日敎養의 基本資料로 使用되고 있다. 그뿐 아니다 各職場 學校에 있는 敎養室과 其他의 壁新聞이 모두가 「勞動新聞」의 末端技能의 役割까지 하고 있다는 事實까지 勸察한다면 勞動新聞이 北韓全域에서 山經체계의 中樞的役割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다시 말하면 勞動新聞과 民主朝鮮은 一般紙의 役割을 하고 있고 이를 補充하는 特殊紙들이 있다.

「平壤新聞」을 비롯 「勞動青年」 「少年新聞」 「農業勤勞者新聞」 「敎員新聞」 「文學新聞」 「朝鮮人民軍」 등이 特殊紙이다.

B. 北韓放送의 特色

北韓 放送의 特色은 한마디로 해서 巨大한 거짓말機構다. 여기에 몇가지 實例를 든다.

于先 1968年 1.21事態를 例로 든다.

北韓放送은 1月22日부터 1.21事態는 南朝鮮人民 武裝遊擊隊가 傀儡大統領의 官邸가까이까지 肉薄해가서 總攻擊을 벌인것을 위시해서 南朝鮮各地에서 活潑하게 展開되고 있는 武裝遊擊隊에 관해서 말한다면서 이것은 美帝國主義者와 한주먹밖에 되지 않는 南朝鮮의 매국노에 反對해서 일어난 人民의 愛國的革命鬪爭이라고 虛偽放送을 했다.

다음으로 68年 10月과 11月에 있었던 蔚珍, 三陟地区 共匪浸透事件에 대해서도 平壤放送은 이 事件이 韓國軍營과 南朝鮮人民武装遊擊隊의 衝突이라고 거짓報道를 했다. 同 放送은 「武装遊擊隊는 4千万 朝鮮人民의 偉대한 首領 金日成元帥萬歲, 美帝國主義와 그 앞잡이를 타도하자고 결구했다. 遊擊隊의 政治宣傳은 反美, 反政府의 感情으로 가득차있던 마을全体住民의 마음을 사로 잡았고 그들의 熱狂적인 歡迎을 받았다」 「遊擊隊員은 惡質地主로 부터 沒收한 食糧과 돈을 줬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후일 다시 만날것을 約束하고 마을 사람들의 案内로 다른 地點으로 行軍했다」 「한 武装遊擊隊가 蔚珍軍住民리 部落을 일주야에 걸쳐서 掌握했을 때 武装遊擊隊의 政治宣傳工作에 感激한 靑壯年 多數는 그자리에서 武装遊擊隊에 參加하기 爲해서 이름 年令 住所를 쓰고 도장을 찍어 入隊願書를 提出했다. 이같은 事實은 南朝鮮 數百萬 人民의 바로 이와같은 覺醒과 覺悟가 革命鬭爭의 불꽃속에서 具體的 行動으로 發展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

以上에서 볼수 있듯이 첫째 北韓 社会全体의 組織과 緊閉氣가 強壯的이라는 點과 放送의 音波에 依한 繼續적인 刺戟은 住民들에게 거의 完全하고도 일방적인 刺戟으로서 作用하는 탓으로 住民들의 批判能力을 本質적으로 減少시키고 있다. 그리고 住民들이 情報에 對한 選擇의 여자가 없기 때문에 比較能力도 가질수가 없다.

둘째 이와같은 社会学的 또는 社会心理的 基礎위에서 黨組織을 通해서 宣傳煽動이 進行되는 것이다.

그래서 党에서 基準이 내려가면 下部組織은 住民의 生活의 모든面에 걸쳐서 組織的으로 이것을 確信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宣傳했다하면 그것이 옳다고 바로 行動에 옮기며 잘못된 것은 具體的 實情에 適用시키지 못한것이 잘못이지 理論 自体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며 그이상 더 생각하지 않게 되어있다. 오늘날의 北韓의 宣傳은 自己의 主觀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無條件받아들이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住民들로서는 自己의 힘만으로는 檢討하고 確認할 수 있는 아무런 基準도 方法도 없이 党的 宣傳사상만을 받아들이게 되어있다.

오늘날 北韓의 實態는 한마디로 北勞党이나 金日成이가 거짓말을 眞實로 가장하여 얼마든지 自由롭게 宣傳할 수 있다는 점이 特色이다. 또 北韓의 放送은 종이와 거리가 없는 新聞으로서 오히려 新聞이 가리지 못한 利點을 살려 金日成体制의 유지와 對南煽動에 앞장서고 있는것이 特色이다.

또 北韓의 放送은 放送이 가지는 직접호소성, 동시성, 호공간성과 단편성때문에 非論理的이고 非体系的이면서도 普遍的인 印象을 풍기는 잇점을 利用해서 北韓 朝鮮中央通信이나 勞動新聞, 民主朝鮮동 党機關紙를 引用하거나 放送委員會 檢閱을 받은 報道를 함으로서 金日成과 勞動党的 꼭두각시 役割을 하고 있다.

다.北韓「매스콤」의 機構

北韓의 「매스콤」은 新聞, 放送, 雜誌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1個의 強力한 黨의 統制를 넘는 中央 通信이 있고 勞動新聞을 비롯 各道日報까지 27개의 新聞들이 있다.

또 社會, 政治, 雜誌로는 黨幹部를 對象으로 하는 「勤勞者」를 비롯해서 18개의 月刊紙가 있고 靑少年 雜誌로는 「千里馬」등 17개 「朝鮮文芸」등 7개의 文芸 藝術部門 雜誌가 있다.

1962년 朝鮮年鑑에 따르면 年間新聞發行 總數는 2억 5천 1백 27만 5천 5백 40부로 되어 있는데 74년 現在는 이 숫자 보다 훨씬 凌駕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北韓新聞의 特徵을 알아보기 위해서 最有力紙인 勞動新聞의 紙面과 編輯上의 特質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A. 勞動新聞의 特徵

勞動新聞 72년 9월 15일자를 分析해 본다. 勞動新聞은 우리 新聞보다 가로 3.5cm 세로 5cm 程度나 紙面이 크다. 따라서 紙面은 넓은감을 준다. 이新聞은 우리는 8面인데 反해 보통 4面과 間紙 2面등 總6面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北韓 新聞들은 4面이다. 이 新聞의 題号는 上段 中央部에 勞動新聞이라고 붙어 있으며 그 밑에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機關紙」라는 說明이 印刷되어 있고 그 밑에 제260호 (루계 제9160호) 1972년 9월 15일 (금요일)이라고 한글로 表示되 있는데 우리新聞은 月定購讀料나 1부 얼마라

는 價格이 表示된데 比해 北韓의 勞動新聞에는 價格表示가 없다. 一面 題号側에는 「우리는 革命的 時代, 鬪爭의 時代에 살고 있다. 革命的으로 일하며 배우며 生活하자!」는 口號가 있고 左側에는 蘇聯 共産党機關紙 「프라우다」를 模倣해서 「탐스」의 名句인 「全世界 勞動者들은 團結하라」는 共産党宣傳의 마지막 句節이 있고 그 밑에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의 主体思想의 具現인 우리党的 自主, 自立, 自衛의 革命路線을 철저히 貫徹하자」는 北勞党的 口號가 掲載되어 있다.

그 밑에는 가로쓰기로 된 記事들이 印刷되어 있고 全面은 6段으로 되어있다.

上部左側에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創建스물네돛을 祝賀하여」라는 欄으로 되어있어 「수과누봉」親王 「티토(찌토)」, 「부메디엔」, 「하페즈」, 「알아샤드」등 共産主義國家나 中立國家들이 元帥들이 보낸 9月8日字 祝電을 掲載하고 上部右側에는 金日成이가 日本社会党 中央執行委員長에게 贈物傳達이 있었다는 東京發 朝鮮通信記事와 金日成이가 6個工場, 企業所를 表彰하였다는 記事와 紙面의 中央部 約 1/3을 차지하는 社說로 채워져 있다.

또 社說 및 左側에는 10月24日 第3次南北赤十字社会談이 平壤에서 열린다는 勞動新聞社 特派員이 서울에서 보낸 發信記事를 실고 있다. 下部左側은 北韓女子卓球選手들이 北京(「베이징」)에서 있었던 第1次「아시아」卓球選手權大會에서 1, 2位를 차지했다는 記事를 실고 있다.

또 이날字 社說에는 「商業일꾼들의 뜻깊은 名節」이라는 題目에서 商業節에 즈음한 글이다. 우리의 新聞社說과 얼마나 다른가를 比較해 보기 爲해 社說의 內容을 잠간 살펴 보기로 한다. 어느때나 마찬가지로 金日成을 序頭에서 讚揚하고 1962年 9月3日과4日의 敎示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商業일꾼大會에서의 金日成 敎示를 극구 讚揚하고, 金日成이가 「社會主義 商業의 本質과 供給制에 關한 思想의 創設者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金日成이 解放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社會主義 商業의 強化發展을 위하여 무려 2千여차례에 걸치는 強力的 敎示를 주시었으며, 首都의 큰 百貨店으로 부터 자그마한 農村商店에 이르기까지 全國各地에 널려있는 商業網들을 450 차례나 現地에서 指導하여 주시었다」라고 하면서 金日成으로 하여금 社會主義 商業의 理論的 創始者로 만들기 爲해서는 金日成의 演說에서 커다란 引用을 두번이나 하고있다.

첫째의 引用이 소위 金日成의 社會主義商業의 概念을 說明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紹介해 보면 다음과 같다.

「商業은 生産과 消費를 連結시키며 都市와 農村의 經濟的 연계를 強化하는 重要한 形態입니다. 따라서 商業을 發展시키지 않고는 工業과 農業을 더욱 發展시킬 수 없으며 勞動同盟을 強化할 수 없으며 人民生活을 높일 수 없습니다」. 이 社說에서도 嚴格하게 金日成의 이 概念을 따르면서 社會主義商業을 「勤勞者들에 對한 計劃的인 分配 供給事業」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結論部分에 들어가서는 또다시 金日成의 말을 引用하면서 이 社會主義商

業의 實踐은 바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首領님의 綱領敎示를 빛나게 遂行함으로써 아버지 首領님의 높은 恩德과 配感에 忠誠으로 보답하자」고 끝을 맺고 있다.

注目할것은 北韓에서는 經濟分野나 學問分野가 分野別로 獨自的인 領域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社說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모든 것이 唯一思想의 機能分野라는 관점에서 評價되고 規定된다는 事實이다. 그러기에 놀랍게도 이 社說 하나 속에서도 金日成을 呼稱하는 度数가 24回나 된다.

그 중에서 文脈에 따라서 呼稱하는 形容이 약간씩 달라서 使用되고 있고 그 種類는 다섯가지로 分類될 수 있다.

首領님 12回

아버지 首領님 3回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 3回

아버지 1回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同志 4回

金日成 著作 引用에서 1回

計 24回

이와같이 해서 一面에서 金日成이라는 呼稱이 나오는 수가 모두 46回가 된다. 이로서 「勞動新聞」은 「金日成 新聞」임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第二面은 어떠한가?

이날은 「商業節」이어서 인지 二面の $\frac{3}{5}$ 을 점하는 紙面을 全광호라는 者의 글이 기다랗게 실려있다.

「이름 없는 산간마을의 한 農村商店까지 찾으시여」라는 題目 밑에 쓰여진 이글은 또한 판에 박은듯하는 金日成禮讚에서 始作해서 金日成에의 忠誠을 맹세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이글에서도 金日成의 「社會主義商業」에 對한 演說에서 세군데나 기다란 引用을 하고 있으며 金日成이가 1958年 3月 14日 元山市 海辺가의 한 食料商店과 1959年 11월 어느날 平南道 온천군의 한 食料店에 들러 「現地敎示」를 하였다는 것을 마치 하느님의 가르침이나 되는것 처럼 우리러 바치고 참으로 그이의 賢明한 領導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偉大한 사랑의 품에 안겨 우리 黨의 붉은 商業戰士로서 人民을 위하여 服務하는 이보다 더 큰 榮光, 이보다 더 큰 보람이 또 어디에 있으랴」라고 絶叫하고 있는데는 놀라지 않을수 없다. 거기에다 이 記事의 한복판에는 不自然스럽게 큰 写真을 掲載하고 있는데 이 写真は 1969年 10月 4日 撮影된 것으로 「平壤市 중구 파실 남새商店을 現地에서 指導하시는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同志」라고 說明을 붙이고 있다. 写真は 왼쪽에 金日成이가 오른손을 허리에 짚고 서있고 그 앞에는 販賣員으로 보이는 中年婦人이 直立해서 對答을 하고 있고 그옆에는 역시 中年婦人이 서있고 左右에는 채소가 약간 쌓여 있는 광경이다. 김승균 찍음이라는 撮影者의 이름도 있다.

二面下部는 또 「偉大한 主体思想의 빛발, 革命勝利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歷史的 文獻」이라는 題目 밑에서 「首領님의 演說 <朝鮮革命家들은 朝鮮을 잘 알아야 한다> 発表 스물아홉뫼에 즈음

하여」라는 이정남이가 쓴 일종의 解說記事를 三面下部 左側二段에
까지 繼續해서 掲載하고 있다.

이 글은 金日成이가 1943年 9月 15日에 朝鮮人民革命軍 政治幹部
및 政治敎員 들 앞에서 行한 上記題目的 演說을 國際分析에 卓越
한 洞察力과 祖國光復의 革命의大事變을 準備性있게 맞이하교 解放
後의 事態에 對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힌 「劃期的 意義를
가진 革命大綱」이라고 規定하고 이 演說에서 길고도 긴 引用을
다섯번이나 하고있다.

結論部分도 역시 「革命의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의 두리에 더
욱 굳게 뭉쳐 主体思想의 偉대한 革命的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
게 싸워 나아가는 우리 人民의 앞길에는 오직 勝利와 榮光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理論的인 問題를 論함에 있어 한번
도 「맑스」나 「레닌」에 關해서는 言及이 없다는 것은 特記할만
하다.

三面은 八段으로 짜여져 있으며 一面, 二面에서 祝賀電報를 除外
하고는 全部가 金日成에 關한 記事 또는 國內問題였던 것에 反해
서 全部가 對外關係 記事를 掲載하고 있다.

말하자면 三面은 外信面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外信이라 해도
그것은 全部가 소위 社會主義團結과 北韓의 國際的 地位에 關해서
有利한 것만 掲載되고 있다.

첫째로 三面上部에 全面的 $\frac{1}{4}$ 을 平壤 교예단이 몽고에서 가진
公演에서 큰 成果를 올렸다는 「울란 바따르」 9月 13日 朝鮮中

中央通信 特派員의 發信記事로 메우고 있다.

이 記事의 題目은 심히 건건이어서 「朝鮮人民의 英雄的 氣象을 보여준 戰鬪的이며 革命的인 교예」라는 題目글자가 左右의 紙面을 꽉 채우고 있다.

교예단이란 씨-커스단을 意味하고 있으나 이것이 그렇게 크게 取扱되고 있는 理由는 이 교예단을 본 蒙古人과 蘇聯인의 反應을 크게 報道하고 아울러 蒙古의 出版物들(新聞들)의 反應도 報道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에도 「勞動新聞」의 外信報道的 選擇性的 基準을 알기 爲한 것으로 좋은 例가 되는 것은 9月9日字 蒙古新聞이 平壤교예단이 「美帝를 暴露斷罪하는 幕間劇 <理髮所>의 한 場面을 찍은 写真」과 더불어 平壤교예단의 水準을 높이 讚揚하였다는 것을 添加하는 것을 잊지 않다는 事實이다. 이 記事의 左側下部에는 朴成哲이가 世界民主青年聯盟 委員長夫婦와 「네팔」王國의 總領事를 만났다는 記事를 各各 二段으로 取扱한 조그만 記事가 있고, 그 밑에 北韓을 訪問한 中國共產黨員休暇團이 <밀림아 이야기 하라>라는 公演을 보았다는 記事가 있고, 中央部에는 上記한 平壤교예단이 蒙古의 黨 및 政府指導者 幹部를 위해서 招待公演을 했다는 朝鮮中央通信의 記事가 실려있고 中央左側에는 「朝鮮職業總同盟과 「이라크」 勞動組合 總聯盟間의 共同聲明이 發表되었다」는 題目 밑에서 兩總聯盟이 金日成의 祖國統一 三大原則을 積極的으로 支持한다는 것을 聲明했다는 것을 크게 報道하고 있다. 中央下部는 日本의 朝日新聞,

毎日新聞, 東京新聞, 産經濟新聞들이 社說에서 <朝鮮統一을 展望한
동거리 外交를>, <國交正常化를 진지하게 檢討 해야할 時期가 왔
다>는 등 日本新聞의 社說題目을 그대로 記事題目으로 내걸고 마
치 日本의 言論들이 北韓과의 國交正常化를 열망하고 있고 韓日國
交正常化를 非難하고 있는 것처럼 報道하고 있다.

이 記事는 東京 9月 13日 朝鮮通信發 朝鮮中央通信記事이다. 여
기에서는 9月 10日의 朝日新聞의 社說을 거의 全文引用하다 시피
하고 있다. 여기서 北韓通信의 偏頗性을 여지없이 나타내고 있다.
下部左側은 「뽀렌올림픽」에 參加한 北韓選手團一行이 特別機便으로
平壤에 돌아왔다는 記事를 역시 朝鮮中央通信記事로 掲載하고 아울
려 飛行機를 背景으로한 選手團의 寫眞도 掲載되고 있다.

이 寫眞은 아무런 說明도 없고 撮影者의 이름도 없다. 이 記
事에서도 「金日成同志의 극진한 配慮와 보살핌속에서」 選手들이
잘 싸웠다는 表現이 들어있다.

四面은 三面과 마찬가지로 八段으로 짜여져 있고 上半部는 두개
의 記事가 左右로 배열되어 紙面을 차지하고 있다. 左側記事는
「체코슬로벤스꼬」(「체코슬로바키아」) 社會主義人民共和國 聯邦
會議의 代表團이 咸南道內에 있는 2.8「바나론」工場을 돌아왔다는
咸與 9月 13日發 朝鮮中央通信記事를 掲載하고 있고, 同時에 平壤
9月 14日發 朝鮮中央通信의 記事로서 同 「체코슬로벤스꼬」 社會
主義共和國聯邦會議 議長인 「알로이스 인드라」를 團長으로 하는
代表團 一團이 14日 午後 平壤學生少年宮殿을 參觀하였다는 記事

를 실고있다. 그런데 이들은 最高人委 副委員長 서철과 社勞党中央委員會 문병록 副委員長의 案内로 이 學生宮殿을 訪問했으며 여기에는 党中央委員會 檢閱委員會 委員長 김려중도 同行했고 宮殿 藝術所員들의 綜合公演을 봤다고 報道하고 있다. 이 記事와 함께 代表團一行이 2.8「비나론」工場을 參觀하고 있는 寫真을 掲載하고 있는데 그것은 朝鮮中央通信 提供이다.

右側은 「勞動新聞」 特派記者의 「르플타쥬」가 掲載되고 있는데 이 記事를 「트락터」가 秋收를 하고 있는 寫真과 같이 백무고원 5号地帶에서 어떻게 豊年이 들었는가를 報道하고 있다. 백무고원은 白頭山 바로 밑에 있는 高原인데 여기의 5号地帶에 밀農事와 감자農事が 잘 되었다는 報道다. 밀은 平均 한평에 1,500~1,600 ㎏씩 서 있다고 하고 한町步에서 3~4톤의 밀을 거둘것이라고 報道하고 있다. 그리고 감자도 町步當 35톤이 될것이라고 하고 있고 감자 35톤은 알곡 9톤과 맞먹는다고 한다.

그런데 平年作을 말할것 같으면 町步當 20톤씩 되는 것이니 今年의 豊年은 農場이 생긴후 처음 보는 大豊年이라고 한다. 그리고는 20年前에는 이 5号地帶는 密林地帶 였는데 이제 黄金이 파도치고 있는 것은 「首領님의 賢명한 領導의 結果」로 되었다는 것을 添附하는 것을 잊지 않고있다.

四面의 下半部는 모두 大韓民國에 關한 記事로 메워져 있다. 于先 左側下部는 朝鮮中央通信社의 報道라 해서 漁撈制止線을 넘었다가 拉北된 90여명의 漁民들을 9月14日 南쪽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報道하고 工業國家로 發展된 共和國北半部の 근부신 現實을 直接보면서 지난날 自己들이 축아 살아온 自身の 죄지를 뒤우지 않았으며 共和國北半部の 社會主義 建設의 輝煌찬란한 成果의 感激을 禁하지 못하였다」고 政治的 「코멘트」를 發했고 또 歸還漁民을 以남으로 떠나기 앞서 「金日成同志께서 提示하신 祖國統一의 3大原則에 基礎한 南北共同聲明을 支持하고 그의 實現을 위하여 開爭한 군은 決議를 披瀝하였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 記事의 바로 밑 部分에 「서울에서 9月14日 本社 特派員發 朝鮮中央通信」提供 記事를 掲載하고 있다.

三段으로 크게 짚은 이 記事는 于先 題目부터가 韓文章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赤十字會代表團을 차 하여 南北調節委員會 南朝鮮側 共同委員長이 小宴會와 晚餐會를 차 려다」라는 主題目的 記事에서 「이후락」委員長이 迎賓館에서 14 日 小宴會와 晚餐會를 차린것을 尙상하게 報道하고 「勞動新聞」당 지 양기 極히 客觀的인 描寫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肯定的인 報 道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하면 四面下 半部 右側紙面에서는 南北調節委員會의 小宴會와 晚餐會에 關한 記事의 바로 右側紙面에서는 내가지의 記事를 登고있는데 이것은 모두 大韓民國內의 否定的인 面을 強調하는 記事로 載워져 있다. 즉 右側上部에서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開學년을 喜음으로 보 내는 南朝鮮 靑少年學生들」이라는 記事로 「勞動新聞」의 이영숙 記者의 글이 있다. 이 記事는 于先 金日成의 말을 引用하는데서

부터 始作해서 今年 여름의 水害로 忠淸北道 堤川郡과 丹陽郡의 国民學校 어린이들이 9月1日 새學期가 始作했음에도 不拘하고 20%의 어린이들이 學校에 나가지 못했고 게다가 學校施設이나 學用品도 물에 젖어 學業을 할 形편이 되지 못하고, 江原道地方에서도 230個의 다리가 破損되었으며 200여명의 兒童들이 學校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면서 學生들이 開學첫날에 울음으로 맞이해야 할 形편임을 強調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와같이 復旧가 늦어진 理由로서 「南朝鮮에서는 戰爭準備를 爲한 費用, 人民彈壓에 物資와 돈이 탕진되면서도 學校教育에는 極히 적은 費用밖에 차례가 가지 않거」 때문이라고 大韓民國政府의 政策批判을 하면서 南쪽에서는 「學校가 돈버리 마당」으로 變해가고 있으며 「學生들에게 60余種에 달하는 雜賦金이 들썩워지고 있고」 「이러저러한 方法으로 올해에 만도 總 500億圓以上이나 되는 돈을 學生으로부터 빼앗아 내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根拠에서 말하는 것인지 「現在 南朝鮮에서 國民學校를 卒業하자 해도 무려 210萬圓의 엄청난 學費를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 今年에 들어서 學費를 내지 못해서 退學당한 學生數가 95萬名이나 된다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면서 「東國大學校 哲學科 1學年 한동제라는 學生이 登錄金을 마련하지 못한것을 비판하여 방안에 煉炭불 3個를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事實까지 添附하고있다. 이 記事는 「自由民主主義의 숨길수 없는 면모」라고 하면서 大韓民國을 誹謗하는 글로 끝을 맺고 있다.

이 記事에 이어 그 밑에 「南朝鮮社会가 빚어낸 慘劇」이라는 題目 밑에서 平壤 9月 14日 朝鮮中央通信記事를 掲載하고 있다. 이 記事 역시 大韓民國을 非難하는 内容의 것으로서 「9月 2日 밤 全羅南道 승주군 락안면 금산리에서 살고 있는 김승현住民의 家庭에서는 세식구가 한꺼번에 集團自殺」한것을 報道하고 있다. 内容인즉 이집 부인이 婦人病에 걸려 全州의 全州예수病院에 入院하였는데 治療費 50萬원을 낼길이 없어 退院 當하고 집에 돌아와서 3세 되는 어린아이를 가슴에 껴안은채 극약을 먹고 自殺하고 말았는데 밤늦게 돌아온 主人 김승현이가 이 光景을 보고 自己도 藥을 먹고 죽었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이 記事는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政治煽動을 하는것을 잊지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悲慘한 現象들이 <福祉社会>라고 하는 南朝鮮에서 오늘 쉬임없이 빚어지고 있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례오는 <自由>와 <民主主義>가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시한번 똑똑히 보게 된다」라는 本格的인 制度批判을 加하고 있는 것이다. 結局 이상의 두 記事는 그들이 말하는 「資本主義社会」의 弱點을 가장 典型的인 方法으로 煽動의 對象으로 取扱하고 있음을 알수있는 「모델 케이스」이다.

下半部 中央部에는 極히 간단하게 北韓側 赤十字會談代表들이 顯忠祠를 돌아 봤다는 報道를 하고 있으며, 最下段에서는 또다시 朝鮮中央通信記事로 慶北 봉화군 봉화중고등학교 學生 10余名을 公納金を 내지 않는다고 해서 몽둥이로 때려 상처가 났다고 報道하고

下部右側部는 中央農村科學院代表團을 歡迎하는 意味에서 農業科學

한다.

印度에 있는 北韓의 外交代表部에서 祝賀宴회 展示會가 있었다고
 서의 祝賀宴會를 報道하고 있다. 「북가리아」, 越盟, 東獨, 「北로」,
 主義 人民共和國 創建 스물네뫼」을 祝賀하는 北韓의 在外公館의
 報道하고 있다. 그 右側에는 역시 朝鮮中央通信記事所가 「朝鮮民
 간경외와 較勝史跡館과 中央工業 및 農業展覽會를 參觀했다는 것을
 이 記事 받어는 역시 朝鮮中央通信記事所 中國蹴球選手團 一行이
 觀했다는 朝鮮中央通信記事所 写真과 함께 掲載하고 있다. 바로
 青年聯盟 委員長夫婦가 간경외를 平壤市內의 여러 곳을 參
 룠아 內아 한다는 것이다. 上部 左側에는 이미 報道된 世界民主
 하는 것과 平和統一을 위해서 「美帝」를 社會主義的 連帶性으로
 크게 掲載하고 있으나 그 重要 要旨는 金日成의 그동안의 業績을 讚揚
 韓의 代表部機關에서 祝賀集會가 있었다는 朝鮮中央通信社의 報道를
 蘇聯, 「로프니아」, 「헝그리아」(헝가리), 「공고」등에서 있는 北
 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創建 스물네뫼의 즈음하여」 「큐바」,
 하기 위한 朝鮮人民의 正義의 鬪爭의 果은 연대성을 表示한다」에
 으로 부터 美帝侵略軍을 撤去시키고 祖國의 自主的平和統一을 이룩
 가 五面上部右側의 五段으로 짜여져 있다. 가다란 題目 「南朝鮮
 聞」이 가장 主力하는 일로서 反美宣傳이 잘 나타나고 있는 記事
 五面은 對外關係面이라고 할수 있는 編輯으로 되어있다. 「勞動新
 있다.

院이 主權가 되어 宴會를 차렸다는 것과 그 자리에서 中國側代表
 림산의 演說을 소상하게 紹介하고 있는데 祖國統一 3次原則을 극
 구 讚揚하고 그것이 「歷史的、潮流」인 것을 強調하였다는 것을
 報道하고 있다. 그리고 五面下部中央에는 역시 「스플네트」에 처
 한 外部言論의 論調를 紹介하고 있다. 于先 「이즈베쓰프야」가
 6個年計劃으로 工業總生産은 2.2倍가 될것이라고 했고, 「파스」
 通信은 北韓이 6個年計劃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고 있다고 했고,
 「포랜드」의 「프리부나 류두」도 보다 큰 成果를 期待한다는 激勵
 을 하였고, 「글로쓰 브라썸」도 經濟發展이 統一의 길이라고 고무
 하였고, 東伯林의 「호리존트」는 北韓이 「美帝」와 그 「走狗」들
 과 잘 싸웠고 世界人民의 尊敬을 받고 있다고 했다는 것을 報道
 하고 있다. 그리고 이 記事의 右側에는 「모리타니아」와 「콩고」
 人民共和國에서 親善 映画週間을 가졌다는 事實을 자세하게 報道하
 고 있고 最下部는 左右로 八段을 다 잡아서 外交往來消息을 伝하
 고 있다. 「핀란드」의 議員代表團歸國, 「시리아」 UN常駐代表夫婦
 가 歸國, 北韓聯盟代表가 「시리아」에서 열리는 17次 「시리아」
 勤勞者勞動組合總聯盟大會에 參席하기 위해 出國, 協同農場代表들이
 「항가리」로 떠났다. 日本 「오사까」府議會代表 歸國, 「이라크」
 勞動總聯盟代表歸國, 靑少年排球選手團이 돌아왔다. 蘇聯 「까자흐
 스탴탄」 共和國 選手團 歸國 등등의 記事가 있다.

다지막 面인 第6面은 外信面인데 이 面의 上部左側에 크게 두
 개의 日本關係記事가 占領하고 있다. 첫째것은 北韓의 對外科學技

術交流協會代表들이 日本의 機械学会 第二次 國際討論회에 參席하고 있는데 이들은 日本의 技術科學界人士들 뿐만 아니라 貿易協會, 言論界 사람들과도 広範圍한 接觸을 하고 있으며 各界에서 歡迎을 받고있다는 것을 報道하고, 이어서 이 記事 밑에서는 이들 一行이 11月 東京을 떠나 平壤으로 行했다는 것을 報道하고 있다. 上部右側은 「르르니아」(루마니아)에서 共産黨幹部 및 經濟指導會가 進行中이라는 것과, 經濟侵略이 있을 境遇 相互支援을 다짐하고 1974年의 「콩고」의 「브라자빌」에서 이會議을 열기로 合意했다는 것을 報道하고 있으며, 이어 그 밑에서는 「칠레」 大統領 「알엔데」가 10萬群衆앞에서 美帝와 國內의 右翼反動에게 打撃을 加할것을 呼訴했다는 것과 11日 放送談話에서도 같은 內容의 呼訴를 했다는 것을 報道하고 있다. 中間部는 東南亞地域에 關한 報道로 되어 있는데 左側에는 于先 越南의 「臨時革命政府」(「베트콩」)가 越南休戰에 關한 그들의 聲明書를 發表했다는 것을 報道하고 그들의 二大原則을 자세히 說明하고 있다. 이 記事 바로 밑에 「베트콩」이 「꽝트리」, 「투아」, 「티엔」에서 莫大한 成果를 올려 越南政府軍〈特攻隊〉 250名, 「탱크」 5台, 장갑차 1台, 軍用車 6台를 부수고 105미리 및 155미리 포탄무지 8個를 燬破하고, 기름 30만ℓ를 불태웠다는 등의 報道를 하고 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밑에 日本에서 1萬余名の 日本人들이 「가나가와」 県 「사가미하라」에서 이곳에서 부터 越南에 로의 軍事裝備輸送에 抗議해서 集合示威를 했다는 것을 「베트콩」의 模範兵士의 寫眞과 같이 報道하고 이와

같은 일은 8月5日 以後 거의 毎日같이 있는 일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六面下部右側上部는 「 캄보쟈 」民族解放人民武装力總司令部가 「 프놈펜 」과 敵의 占領下에 있는 地域에 對한 攻擧를 強化할것을 命令했다는 것을 報道하면서 畝속에서 政治學習을 하고있는 「 캄보쟈 」民族解放人民武装兵들의 写真과 함께 掲載하고 있다. .

이 記事의 바로 밑의 左右에는 「 이스라엘 」 「 侵略者 」들의 「 시리아 」에 對한 「 시리아 」外務省의 声明發表와 東獨外務省의 声明發表를 紹介하는 記事를 掲載하면서 바로 그밑에 「 파레스틴 」遊擊隊가 「 이스라엘 」의 砲艦 1척을 浸沒시켰다는 것을 報道하고 있다.

B. 編輯上的 特輯

勞動新聞은 「 프라우다 」와 같이 6面이다 毎日 發行된다. 北韓의 勞動新聞이 6面만 發行하는 理由는 資本主義 體制아래서의 新聞과는 달리 營利目的이 아니고 商品廣告를 할 必要도 없고 오로지 黨의 強力한 「 이데오로기 」的 武器이며, 黨에 依해 強力하게 統制되고 있기 때문에 6面으로서 이 機能을 發揮할 수 있다고 判斷하기 때문이다. 勞動新聞을 包含해서 北韓 新聞의 特色은

完全한 党的 統制아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뉴스」들이 党的 立場에서 정연하게 選擇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党的 統制는 新聞이 대부분의 記事를 中央通信을 主宰하고 있는데서 發見할수 있다. 勞動新聞 9月 15日字는 6面에 걸쳐 掲載된 44건등 祝電과 社說 個人記名으로 된 글 또는 「르포르타쥬」등 4件을 除外하고 40件의 記事는 中央通信을 主宰하고 있다.

이것은 勞動新聞記事의 90%가 調査中央通信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事實을 意味한다.

뿐만 아니라 社說이나 記名記事도 党的 嚴格한 檢閱을 받아야 하며 萬一의 事故에 대비해서 6面끝에 「編輯委員會」라고 編輯責任對象을 밝히고 있다.

또 主宰되는 調査中央通信도 中央通信編輯委員會의 責任맡에 製作, 配布되고 있기 때문에 勞動新聞은 事實上 그들의 自体檢閱을 받고 있음을 알수있다.

이런 統制와 檢閱을 거쳐 發行, 配布되는 新聞은 資本主義式의 「뉴스」報道라는 概念 보다는 党和 內閣 金日成의 偶像化만을 위해 만들어 진다고 할수 밖에 없다.

北韓에 있어서의 「뉴스」는 社會主義建設過程에 뜻이 있는 것만이

「뉴스」의 紙面에 擧げられて 價値를 找기 爲기 爲문에 「뉴스」를 多量하게 擧
 載할 必要도 없고 또 많은 「뉴스」등의 어느것을 採할것인가를
 考지할 必要도 없다. 따라서 紙面도 많이 必要하지 않다.

1面은 外國에서 金日成에 對한 「調査民主主義 人民共和國創建」을
 論じて 祝賀하는 祝電과 金日成과 北韓內閣의 國際的地位向上에
 對함이 되는 記事를 가장 重要하게 다루고 있고 그다음으로 南北
 赤會談과 北韓女子複式卓球選手가 北京에서 日本選手들을 이겼다는 것
 도 政治的인 重要事件으로 1面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뉴스」는 速報性을 전혀 考慮하고 있지 않고 있다. 于先 15
 日字 新聞에 13日에 있었던 女子卓球選手權大會記事를 다루었고
 金日成의 母인 祝電도 모두 9月8日字를 報道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共和國 創建 스톨니츠를 위한 祝電은 10月25日까지
 掲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確實히 알 수 있다.

「프라우다」는 「스타린」의 生日 祝賀全文을 數個月에 걸쳐 報道
 한 事實과 유사한 것이다.

또 2面은 全面이 金日成의 主体思想과 現地指導에 관한 記事로
 充워져 있고 繼續해서 3面에까지 繼續되고 있는데 2面은 實質的으
 로 金日成學習을 위한 面이라고 할 수 있다.

3面은 우리의 外信面과는 조금 다른 對外關係記事를 다루고 있는데 文化交流, 外國人訪問團消息, 海外論調, 「문헌 올림픽」北韓選手團 歸國記事등으로 채워져 있다.

4面은 우리의 2面 經濟面과는 약간 다르지만 經濟面이라고 볼수 있다. 「체코스로벤스꼬」聯邦會議 代表團이 咸興의 2.8 「비날론」 工場을 視察해서 경탄과 놀라움으로 北韓의 技術을 讚揚했다는 추상적인 記事만 報道할뿐 工場의 生産能力이나 品質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

또 農業部分의 境遇 백무고원 5号地帶農場에 관한 「르포르마주」는 상세한 生産実績과 展望을 記錄하고 있다.

또 이면에서는 南韓의 社会經濟的 矛盾을 暴露하거나 南韓의 教育 費問題를 크게 다루는등 自由社会의 体制批判을 시도하고 있는것이 特色이다. 이면에서는 또 北韓의 工業 農業分野의 發展上을 紹介하면서 南韓社会의 不条理를 파헤친것이 特徵이다.

한편 5面과 6面に 있어서는 國際 外交關係面으로 編輯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特徵을 가지고 있다.

國際關係에 있어서는 北韓의 政治的 文化的地位를 向上시키는 印象을 풍기는 記事만 報道하고 둘째 國際勞使에서 反美 反資本主義를 뚜렷

이 하는 特徵을 보이고 있다.

특히 越南과 「캄보디아」戰爭을 報道하거나 日本 및 中東問題를 報道하는 過程에서 이原則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結論적으로 말해서 勞動新聞은 北韓勞動黨의 機關紙이기 때문에 一方的으로 北韓住民에 對한 情報傳達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안 事實이나 蘇聯共產黨 機關紙인 「프라우다」에서 보듯이 讀者의 欄이 없는것이 特色이다.

또 各階層의 黨政策遂行機構에 對한 自己批判을 反映하는 記事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民衆의 소리를 代辯하는 記事로 보이지 않고 있다.

北韓의 勞動新聞은 주로 金日成의 主体思想과 現地指導를 극구 讚揚하고 있을 뿐이다. 勞動新聞은 철저하게 「위에서 부터의 指令傳達의 手段으로서만 機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新聞과 比較해서 보면 體育欄도 없고 新聞을 通해 娛樂性을 찾아볼수 없는것이 特色이다.

<別表 I >

北韓의 新聞發行現況 및 重要人物

新聞名	發行機關	重要人物	發行部數
로 동 신 문	노동당중앙위원회	責任主筆 鄧準基 副主筆 朴民壽, 李是源 鄧河千 李斗鎭	30 萬部
민 주 조 선	최고인민위원회 및 내각	責任主筆 金英建 副主筆 車雲吉, 姜基植	2~3 萬部
평 양 신 문	평양시인민위원회	責任主筆 金大乙 副主筆 柳桂鏡	2~3 萬部
로 동 청 년	社 勞 青	責任主筆 金東國 副主筆 禹宗學	6 萬部
로 동 자 신 문	職 總	副主筆 沈相鎭	2~3 萬部
조 국 통 일	조국통일위원회	社 長 李萬珪 編輯委員 洪起文	1 萬部
소 년 신 문	社 勞 青 동맹 중앙위		20~30 萬部
농업노동자신문	農勤盟中央委		2~3 萬部
教 員 신 문	보통교육성, 문화성, 보건성 및 공무원직업	동맹중앙위	
농 민 신 문	농업근로자동맹중앙위		年 122 회
민 주 청 년	노동청년동맹		日 刊
문 학 신 문	작가동맹중앙위		(週 刊 用) 대남선전
기 술 경 제	과학기술보급협회중앙위		"

新 聞 名	發 行 機 關	重 要 人 物	發 行 部 數
상업신문	상무성, 경공업성 상업노동자직업 동맹중앙위	責任主筆 朱鍾熙	週間 1 萬部
조국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중앙위		
조선인민군	민족보위성		
교통신문	철도성		
보위신문	사회안전성		
건설신문	국가건설위원회		
체육신문	체육지도위원회		
수산신문	수산성		
대학신문	각 대학		
통일신보	무소속대면지		
각도일보	各道黨위원회		
상업신문	상업성, 경공업성 상업노동자직업동 맹중앙위		
朝・蘇친선	조・소친선협회 중앙위		

<別表Ⅱ>

北韓의 社會政治, 青少年雜誌, 文芸
 芸術部門雜誌一覽

雜誌名	所屬機關	年發行 回数數	對象
근로자	노동당중앙위원회	12	黨幹部 職盟初級團體
노동자	職總중앙위	12	
조선여성	여성동맹중앙위	12	
조선기자	기자동맹	12	
民主司法	사법성	12	
평화사회주의문제	노동당이론및보도잡지		
聯盟生活	직업총동맹중앙위	12	
國際生活		24	
祖國保衛를위하여	조국보위중앙위	12	
청년생활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중앙위	12	
번역月刊			
정치지식			
千里馬	직업총동맹	12	공업및농업분야 작업반원
三千里	"	12	對外宣傳
대동문화	"		예술씨클
청년생활	社勞靑	12	社勞靑조급단체
소년단	"	12	소년단분단
새세대	"	12	

雜誌名	所屬機關	年發行部數	對象
南朝鮮問題	社勞青	12	郡級幹部
국제생활	"	12	
조선우표	"		
화살	"		
朝鮮	"		
기술학교	보통교육성교육문화	12	
고등교육	고등교육성		
역사과학	사회과학역사연구소	12	
조선語學	어학연구소	12	
경제연구	경제연구소	12	
연맹생활	직업총동맹	12	
朝鮮文學			成人
青年文學			青年
兒童文學			少年
朝鮮美術			美術家
조선음악			音樂家
조선예술			演芸人
조선영화			映面人

○. 北韓의 通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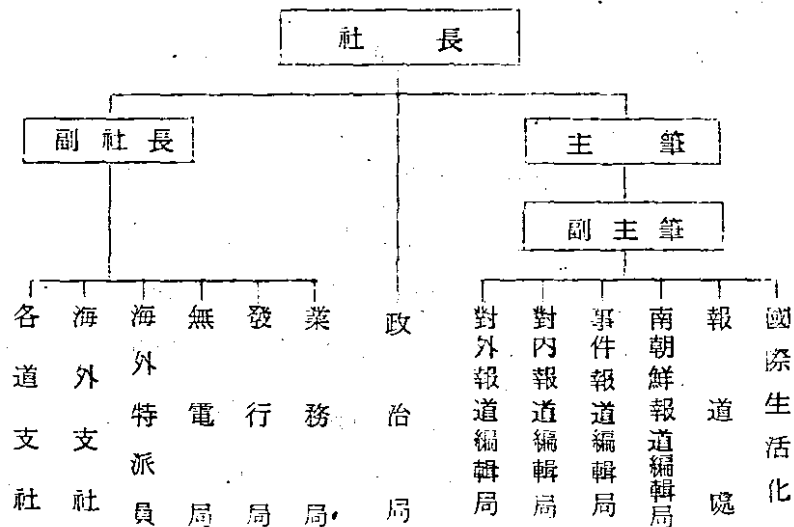
다음은 北韓의 通信社를 살펴본다. 北韓에는 通信社會로서는 中央通信社 하나밖에 없는 것이 特色이다. 1948年 10月 1日에 創設된 中央通信은 內閣直屬機關으로 각 道에 支社를 두고 있다.

中央通信은 勞動黨과 北韓共產政權의 宣傳政策을 報導하고 있는데 黨宣傳機構에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對外的으로는 蘇聯의 Tass 通信과 中共의 新華社通信 「체코」의 「체데카」通信을 비롯 共產圈의 通信社들과 送受信 및 宣傳煽動部에서 實施하는 黨宣傳政策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으며 日刊 朝鮮中央通信, 사진 통신, 英文通信, 英文과 露語로 된 朝鮮消息, 朝鮮中央年鑑을 發行하고 있다.

中央通信은 北韓의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각 新聞社와 放送局에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또 現在 이 通信社의 社長은 김성철이다.

<別表Ⅲ> 中央通信社의 機構



D. 北韓의 放送

다음은 北韓의 放送을 살펴 본다. 北韓의 放送은 新聞 못지 않게 重要性을 지니고 있다. 共產主義 國家에서는 放送「미디어」는 新聞과 함께 重要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北韓放送의 歷史는 1936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日帝때인 36年 10月 北韓에는 出力 500W의 소규모 平壤放送과 咸興放送이 생겨 韓國말과 日本語로 放送을 해왔다. 그後 1937年 6月 5日 淸津放送이 생겼고 42年 4月에는 海州 및 新義州 放送局이 新設되었다.

1930年代 北韓의 放送受信機 台數는 8千台에서 7萬5千대로 늘어나면서 그 重要性이 부각되었고 放送이 大衆化되기 시작했다.

8.15解放이 되자 45年 10月 14日 平壤放送은 出力 500W로 朝鮮中央放送局으로 改稱 發足 6.25動亂때 破壞될때까지 放送業務를 繼續해 왔다.

放送은 新聞과 같이 革命의 主要手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党的 掌握아래 두었다.

放送은 內閣直屬의 中央放送委員會(59年 11月 29日 TRT 加入) 밑에 平壤市 및 市道放送委員會, 郡放送委員會, 郡區通信所(中繼所)가 200個, 리체신분소(放送室)가 4,255個나 된다. 內閣 通信省의 技術지원을 받고 있는 北韓 放送은 對南用인 出力 300KW의 朝鮮中央第1放送이 있으며, 勞動黨 中央黨對南總局 管하의 出力 500KW인 朝鮮第2放送이 對南放送을 하고 있다. 또 出力 100KW의 國際放送은

英語, 日語의 對外放送을 하고 있다. 그밖에는 70年6月1日에 發足. 50KW의 對南 혹색선전을 위한 정체불명의 統一革命黨 목소리 放送이 있으며 出力 600KW의 平壤有線放送과 5KW의 平壤 T·V放送局이 있다.

北韓의 放送은 對內的으로 金日成 唯一思想을 고취하고 內閣의 業績을 宣傳하는 重要한 「메디아」로서 位置를 차지해 왔다.

그리고 朝鮮中央第2放送은 南韓에 대한 誹謗과 中傷謀略을 주로 하면서 駐韓美軍과 韓國國民間의 이간을 劃策하고 있으며 南派된 間諜들에 대한 指領을 내리는 諜報用으로 使用하고 있다.

現在 北韓에는 約 30萬台로 推算되는 「라디오」가 있으며 北韓全家口數의 65%인 175萬戶外 有線放送을 들고 있다.

北韓의 年間 「라디오」 生産台數는 約 10萬台로 推算되고 있으며, 單鏡대, 백두산, 송학등의 명칭을 붙여 生産하고 있다. 그밖에도 北韓에는 蘇聯, 日本, 「헝가리」, 「체코」中共 등에서 輸入한 「라디오」가 있으나 大部分 「다이얼」을 國內放送 주파수에 맞춰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大韓民國의 放送을 一般住民들은 聽取할 수가 없다. 다만 大韓民國의 對北放送을 들을 수 있는 階層은 勞動黨 道黨委員長級 以上の 黨幹部, 中央通信社內 國際部 報道關係者, 南派된 間諜要員들뿐이다. 한편 北韓은 61年9月7日 TV放送局 設置 7個年 計劃을 세운후 61年9月10日 中央放送技術委員會 技術集團에 의해 最初로 T·V放送機를 製作했고, 같은해 10月15日 平壤通信大學 教職員 및 學生들에 의해 最初로 産業 T·V를 製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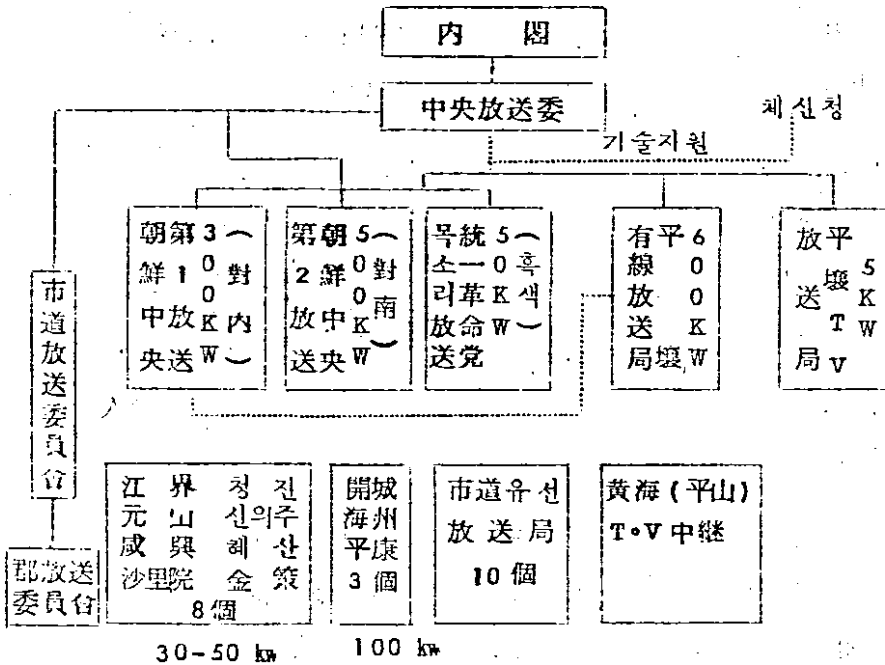
는데 成功했다. 그後 62年 北韓은 平壤市 모란봉구역 「가루재」에 「차널」12, 出力 5 KW의 平壤 T·V 放送局을 착공 67年 4月에 完工을 보았고 每日 4~5時間씩 放送을 하고 있으며, 70年 7月에 興南 T·V를 完工했다는 說이 있으며, 現在 元山 T·V 放送局을 建設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最近 開城 T·V 放送局을 新設 서울 일원에 本格的인 對南宣傳을 하고 있으나 별 效果를 보지 못하고 있다. 現在까지 中繼所는 黃海中繼所와 마실령중계소등이 設置된 狀態이다. 그들의 T·V는 아직 우리나라와 比較해서 放送 內容이 判異하게 다를 뿐 아니라 質的으로도 相當히 뒤떨어져 있는 것도 事實이다.

現在 北韓에는 約 1萬台的 T·V수상기가 있으며, 곧 日本에서 5萬台를 輸入할 計劃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의 T·V 放送 프로 內容을 보면 下午 7時부터 시작되는데 7:00~7:20 뉴스 時間이다.

「뉴스」時間에는 판에 박은 金日成周邊의 消息을 傳하고 그의 唯一思想을 敎養하는 內容과 南韓에 대한 誹謗을 비롯 각종 惡宣傳으로 짜여 있다. 「뉴스」는 下午 8時 50分부터 9:00時까지 두차례에 걸쳐 있으며 7時 20分부터 17時 40分까지는 少年團時間이다. 7時 40分 부터 17時 50分까지 寫真編輯이 放映되며 7時 50分부터 8時까지는 黨政策에 관해 解說이 있다. 그리고 8時부터 8時 30分까지 鎔工場, 「트럭터」生産, 鐵鋼生産을 비롯한 그들의 産業 宣傳을 위한 科學映畵가 放映되며 8時 30分 부터 20分

동안 營業강화가 있다. 그리고 9時부터 10時 30分까지는 朝鮮映
 面製作所에서 만든 藝術映画나 金日成의 抗日「빨치산」運動을 內容
 으로 하는 映画나 反美感情을 煽動하는 映画가 放映된 後 10時
 30分부터 5分間에 걸친 날씨예보와 來日의 放送順序로 放送은
 끝난다.

〈別表Ⅳ〉 北韓의 放送機構



郡區 通信所(中繼所) 200個, 通信分所(放送室) 4,255個

※ 이밖에도 강원, 城津, 昌原, 장전에는 5 KW 放送施設이 設置되
 어 있고 上記放送中 6個(강계, 사리원, 청진, 신의주, 개성,
 해주는 放送施設이 地下에 있음)

Ⅲ. 北韓의 言論政策

가. 基本方向 및 目標

北韓의 言論政策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共產主義體制 아래 言論의 發生過程을 알아 볼 必要가 있다.

共產主義 支配 아래 있는 모든 新聞은 그 모형을 蘇聯에서 導入했다. 北韓의 勞動黨機關紙 「로동신문」도 그 例外일 수는 없다. 各國의 共產黨機關紙는 蘇聯共產黨機關紙 Pravda의 形態를 模倣하면서 各國 共產黨的 特有的 歷史的 社會的 條件에 따라서 약간씩 修正되고 있으며 이 修正度가 곧 各國 共產黨機關紙의 特性이다.

北韓의 言論政策은 對內的으로, 人民을 教育시키고 同時에 內閣의 決定과 政策을 周知시켜 人民들로 하여금 內閣派 黨이 의도하고 있는 一定한 方向 즉 黨의 目標을 위해 動員시키는데 있다. 北韓 勞動黨의 言論政策을 보면 事前에 徹底한 計劃 아래 言論人 組織的인 工作活動과 積極的인 諜報活動까지 하도록 되어있으며 北韓의 言論人은 黨의 代弁人이며 宣傳員으로 把握해야 한다. 또 言論人들의 行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黨의 強力한 統制를 받고 있으며 自由롭게 取材할 수 없는 것은 勿論 黨의 指示事項만 取材할 뿐이다.

따라서 北韓의 言論人들은 特定知識만 갖게 되며 國際的이며 歷史的인 知識이 빈곤할뿐 아니라 그들의 發言이나 行動은 黨의 嚴格한 規制를 받고 있다.

北韓의 言論政策을 要約하면

- ① 新聞, 放送을 비롯 「매스·미디어」는 對內的으로는 金日成의 唯一思想을 人民에게 심어주고 金日成 1人 偶像化를 통해 共產國家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1人體制를 構縮하는데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도록 짜여져 있다.
- ② 또 新聞이나 放送은 勞動黨과 內閣의 權位와 함께 金日成을 神格化하고 그 權位를 強要하는 手段으로서 強要되고 있다.
- ③ 黨과 內閣의 政策이나 그의 執行過程을 一方的으로 批判없이 報道하고 啓蒙함으로서 社會主義國家建設에 人民들의 犧牲을 強要하도록 政策的으로 誘導하고 있다.
- ④ 北韓 勞動黨의 窮極的인 目標은 窮極的으로 大韓民國을 赤化統一하는데 있기 때문에 大韓民國의 어둠고 그늘진 곳을 誇張 報道하거나 虛偽事實을 造作 또는 날조하여 北韓人民들로 하여금 犧牲을 強要하고 있다.
- ⑤ 黨幹部와 黨員에 대한 教養을 繼續 함으로서 權力構造나 社會組織의 強化를 企圖하고 있다.
- ⑥ 또 對外的으로는 北韓의 利益을 追求하고 國際的인 同調勢力을 얻는데 主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北韓의 對外宣傳은 共產國家와 中立諸國과 함께 反帝, 反植民主義를 내세워 紐帶關係를 強化하고 自由陣營國家에 대해서는 底辺으로 부터 파고 들어가는 소위 人民的團結을 強化하는

原則아래 該當地域國家의 특수한 政勢發展을 勘案하여 그에 편승하며, 北韓의 發展相과 平和「이미지」를 注入 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

나. 北韓의 「매스콤」 統制政策

北韓의 「매스콤」은 처음부터 黨의 所有로 되어 있거나 黨의 強力한 統制를 받고 있다.

모든 言論統制는 黨中央委와 內閣의 宣傳煽動部를 통해 強力히 實施되고 있다. 北韓의 言論統制政策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宗主國인 蘇聯의 言論統制와 自由國家 또는 非共產獨裁國家의 言論統制와 比較해 본다. 北韓을 包含해서 共產國家들은 黨과 內閣의 公式機構를 통해 言論을 統制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事實이다.

蘇聯에는 1931年6月9日 Glablit (「그라브리트」)라는 檢閱機構가 創設되었다. 「그라브리트」는 政治·思想·軍事·經濟分野의 出版物은 勿論 新聞, 放送, 심지어 講演會까지 모든 分野에 걸쳐 檢閱를 해왔다. 全國에 各支部를 두고 있는 「그라브리트」는 新聞社, 放送局, 雜誌社 等に 常駐하면서 出版될 各種 책자, 新聞 등의 原稿를 事前檢閱하고 講演會, 傳單等 人民에 公開되는 모든것에 대해 事前檢閱을 한다.

또 이 機構를 定期刊行物의 새로운 出版權이나 이미 發刊되고 있는 모든 刊行物 放送局에 대한 폐쇄권도 함께 갖고 있다.

또 이 機構는 책, 「팸프릿」, 放送原稿까지 徹底한 事前檢閱을 한

후 2段階로 組版된 各面을 재차 檢閱을 派遣官으로부터 받은후 出版된다. 또 放送은 全同盟「라디오」委員行(B.P.K) 統制아래 있다.

BPK는 各課와 委員行의 統制를 받는 行政單位에서 運轉된다.

BPK의 直接統制 밑에 中央放送局이 있어 여기서 放送되는 中央放送 또는 全同盟放送은 全國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BPK는 關係會議 直接統制아래 있고 關係會議 政策決定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實質적인 機能은 關係會議의 幹部에 해당된다.

또 BPK는 黨에 대해 종속관계를 가지므로서 黨의 統制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은 放送「미디어」가 共產主義國家에서 얼마나 重要な 役割을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BPK는 黨의 指領을 修行하고 그 結果에 대해 黨에 의해 批判을 받는다. 이것도 부족하면 黨은 BPK에 統制 責任者로서 黨의 新任을 받는 사람으로 교체시키고 또 放送從業員中에 黨員을 많이 배치시켜 黨의立場에서 監視하고 있다. BPK는 黨中央委나 宣傳煽動部가 統制하고 地方組織의 黨地方組織에 의해 統制를 받으며, 下部組織인 中繼所는 노조의 統制밑에 있다. 그밖에도 放送은 文化檢閱上의 繼續적인 指揮밑에서 機能을 發揮하도록 되어 있다.

「라스웰」에 의하면 檢閱이란 危險한 思想의 表現을 統制하는 行爲를 意味한다. 그러나 共產主義에 있어서 新聞은 2重統制를 받고 있다.

北韓의 新聞도 黨과 內閣에 의해서 統制를 받는다. 言論機關은 行政體系上 內閣의 統制를 받고 있고 內容에서는 黨의 統制를

받고 있다. 다른 共產主義 國家에서와 마찬가지로 北韓에 있어서도 「이데오로기」적 統制를 더욱 重要視하고 있다. 그들의 檢閱制度는 黨爲主로 되어있다.

北韓의 言論檢閱를 보면 第1段階로 各新聞社의 記者, 部長, 副局長과 局長을 통해서 第2段階는 副主筆과 主筆을 통해서 되고 있으며 이상의 統制는 內閣의 出版總局新聞課에서 掌握하고 있다.

또 3段階로는 勞動黨中央黨 宣傳煽動部 新聞課에서 統制하고 있는데 北韓의 重要新聞들은 官營 中央通信社에서 提供하는 기사로 메우고 있으며 나머지 기사는 前記한 系統을 밟아 檢閱를 받고 있다.

또 北韓言論人の 身分은 特定한 分野에 從使하기 보다는 黨의 員으로서 認識되고 있다. 따라서 編輯人이나 主筆, 副主筆, 各局長과 副局長, 部長, 記者는 黨이나 內閣에 의해 任命된다.

여기서 自由障營이나 非共產獨裁國家의 言論統制 方式를 紹介하면서 北韓의 言論統制方式와 比較해 본다.

우선 自由障營에서는 新聞發行的 要件을 強化(施設, 資本金等)해서 政府로 부터 事前 發行許可를 받도록 하는 方法이 있다.

또 發行되기前에 原稿나 台帳을 點檢하는 事前檢閱制度가 있다.

또 政府가 制限한 內容에 관한 著述이나 新聞報道에 대한 禁止命額을 들 수 있으며 名譽毀損이나 犯法行爲에 관한 高額의 保釈金制度의 實施等을 손꼽을 수 있다. 또 판권소유권자나 所有當局에

對한 強壓的인 告知方法과 政府나 執權者에 對한 不快感을 주는 報道에 對해 刑事責任을 묻는 方法等도 있으며 名譽毀損이나 誤報에 對한 訂正, 取材員接近節次에 差等을 두는 制度, 記事 송고 業務連絡을 爲한 通信施設 利用에 對한 規制, 配布를 爲한 交通施設 利用制限, 營業稅 所得稅, 法人稅等에 重課稅를 하거나 政府補助金의 差等配分方式, 또 購入, 読書, 聽取에 關해 干涉하거나 비위를 거슬리거나 不利한 記事에 對한 事前檢閱해서, 削除하는 方法, 또는 不利한 記事와 推測記事를 실었을 때 法에 의해 停刊, 廢刊시키는 方法은 多樣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非共產國家의 言論 統制나 檢閱은 多樣해서 나라에 따라 또는 政治체制나 指導者의 個性에 따라 그때 그때의 實情에 맞게 方法이 變使되고 있다. 이에 反對 共產主義의 言論統制 方法은 單純하고 組織的이고 有機的인 것이 特色이다.

이러한 2重統制속에 있는 北韓의 言論을 通해서는 그들의 政治形態나 黨政策을 分析할 수 없으며,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들은 처음부터 타부로 되어 있는 것이 事實이다.

北韓의 大部分 言論은 「위대한 金日成」의 敎示와 黨의 政策과 전체적인 一方的 要求만을 紙面에 실고 있다.

따라서 新聞은 黨政策이나 內閣의 行政 實績이나 秘政에 대해서 一切의 批判도 할수 없도록 禁止되어 있으며, 一方的인 黨政策의 事前 內閣業績에 대한 찬양만이 許容될 뿐이다.

北韓의 憲法에는 言論自由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勤勞者의 利益에 合致되고 社會主義 體制를 強化하는 目的에 이바지 하는 範圍안」에서라는 한서불·불입으로서 事實上의 言論自由는 全無한 狀態임을 볼 수 있다.

B. 統制樣相의 變化

北韓의 勞動黨이나 內閣은 72年 7月 4日 當時 李厚洛中央 情報部長과 北傀勞動黨 組織部長 金英柱間에 發表된 7.4 共同聲明을 契機로 그들의 言論統制樣相을 조금씩 바꾸기 始作했다.

그들은 相互誹訪中止合意에 따라 北傀의 新聞, 「라디오」, T·V 放送을 包含한 모든 言論이 對南誹訪을 中止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러한 政策變化는 對外的으로도 나타나기 始作했다.

첫째, 그토록 철저했던 金日成의 個人에 대한 偶像化선전은 7.4 声明以後에 顯著히 減少된 반면 그대신 金日成의 平和3原則과 社會主義體制의 優越性 宣傳에 集中하고 있다.

지금까지 北韓은 對內的으로나 對外的으로 金日成 偶像化에 努力해 왔다.

對內的으로는 이미 여러가지 實例를 든바 있지만 對外的으로도 뉴욕타임스나 런던타임스에 金日成 個人을 偶像化하는 廣告를 數萬 달러씩 들여가며 해온것도 잘 알려진 實情이다.

그런데 北韓이 最近 이런 廣告를 掲載하지 않는 것은 金日成 偶像化에 대한 先進諸國, 특히 民主主義의 國家에서 잘 理解가 안될뿐 아니라 金日成과 같은 獨裁者에 대한 個人崇拜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惡感과 혐오감 마저 불러일으키는 逆效果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막대한 外貨만을 浪費하는 結果를 가져왔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計算때문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對內的인 偶像化 政策은 아직 뚜렷하게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으나 對外的인 偶像化宣傳을 하지 않는 점을 볼때 北韓은 金日成 偶像化 宣傳을 對內用과 對外用으로 区分하고 있다고 分析할 수 있다.

둘째, 北韓은 7.4 声明以後 好戰的 이고 挑発的인 對南宣傳을 止揚하고 지난해 金英柱의 声明이 나올 때까지 그들의 言論은 韓國에 대한 誹謗을 크게 삼가해 온것을 볼 수 있다. 北韓이 對南 誹謗을 減少시킨 것은 國內外에 北韓도 國際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笑踐한다는 印象을 주기 위한 제 스쳐로 評價되었으나 最近 誹謗을 再開하게 된 理由는 韓國이 南北對話를 위한 體制를 구축하기 위해 10月 維新을 통해 韓國의 國內體制를 공고하게 다져나가는데 당당한 때문인것 같으며 이러한 體制強化에 그들이 利用 당하고 있다는 非難을 받지 않겠다는 계산에서 나온것 같다. 또 다른 側面에서는 지난해 8月 金大甲씨 拉致사건을 계기로 國內外로 일어났던 混亂에 편승하기 위해 갑자기 對南 誹謗을 전보다 몇배로 더 強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우리 內部의 混亂을 利用해서 政府와 國民을 이간시킬려는 계산된 底意에서 나온것 같다.

셋째, 그들의 言論은 지금까지 金日成의 非現實的인 平和統一方案을 소개했던것을 中止하고 世界의 輿論이 納得할 수 있는 새로운 統一方案—南北間의 平和協定締結, 相互減軍, 聯邦制—을 소개하면서 6.25南侵때 받은 好戰的侵略者라는 印象을 拂拭하고 平和愛好, 平和志向的인 印象을 출려고 努力하고 있다.

北韓의 노동신문은 73년 4월 23일호에서 “北韓은 北韓에 대해 友好的인 어떤 國家와도 外交關係를 樹立할것이며 平等과 相互尊重의 原則에서 政治經濟關係를 開發하고 있다”고 報道했는데 이것은 北韓이 國際的인 孤立을 脫皮하고 國際舞台에서 우리와 競爭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北韓은 7.4 聲明以後 그들의 言論統制를

약간 緩和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最近 南韓에 다녀간 北韓
言論人들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욱 監視를 強化하고 있으며, 言論에
대한 統制도 7.4聲明이전으로 돌아간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IV. 우리의 對備策

南北關係가 熱戰과 冷戰時代를 거쳐 對峙있는 對決의 時代로 접어든 政勢變化속에서 言論이 차지하는 比重은 南北어느 쪽이든 간에 가장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北韓의 言論이 黨이나 內閣의 造作的인 統制아래 社會主義 建設에 매진하고있는 점을 감안할때 우리 言論도 對北關係를 볼때 지나친 自由경쟁에서 오는 不必要한 混亂은 可及的 避해야만 할것 같다.

勿論 우리 言論의 生命은 自由競争에 있음은 말할必要조차 없다. 北韓에 있는 政權이 우리와 같은 이념이나 權力形態를 가진 政府라면 우리는 하나도 自由競争하는 言論을 自制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그들의 體制가 共產主義 體制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惡毒한 金日成 一人体制라는 點을 감안할때 우리 言論이 北韓과의 對決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 言論은 北韓의 權力構造나 社會體制를 冷徹하게 분석하고 그들의 感情과 軋점을 把握해서 그들과의 어떤 形態의 對決에서도 이길수 있도록 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國家가 있어야 民族이 生存할 수 있으며, 民族이 있어야 言論도 存在할 수 있다는 點을 생각할때 우리 言論은 좀더 自律속에서 國家發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考察한바에 의하면 우리 言論과 北韓의 言論은 그 출현의 歷史的背景에서 부터 우선, 機能에 이르기까지 하나서부터

열가지 判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條件아 래서 對北 言論對策은 두가지 大分 된다.

첫째 지금까지 육성해온 自由言論을 계속 擴大, 延長, 補強함으로
서 이 基盤위에서 北韓의 言論과 對決을 試圖한다.

둘째 우리의 自由言論은 貴重하기는 하나 南北對決을 考慮할때
一元的이고 組織的인 北韓의 言論攻勢에 對抗하기 위해서는 우리言
論自體의 内部構造改革과 言論人들의 意識構造를 改編, 能率을 極大
化시킨다.

첫째의 原則이 採擇될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現實에서 많은 制約
이 있는것을 否定할 수 없지마는 自由言論의 本質的인 特性, 自由
主義, 商業主義 報道的 客觀性 批判速報性까지 拋棄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 問題에 關해서는 여러가지 論爭이 있을 수 있다. Insider
인 政府의 立場에서 보면 國家나 民族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言論
自由라 할지라도 일정한 부분이나 期間동안 그 自由를 留保해야
한다고 主張할것이며 國政의 Outsider格인 言論으로서는 政府가
苦痛이 있더라도 艱難으로 言論自由를 育成해야 한다는 主張을
내세울것이다. 그러나 國民의 立場에서 보면 우리現實이 뉴욕타임
즈나 르.몽드, 기타 自由世界 先進國들이 누리고 있는 거의 絶對
的인 言論自由를 누릴수 있느냐, 또 누려야만 하느냐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없지 않다. 우리는 南北對話期間中 여러차례 北韓
을 訪問하면서 그들의 言論에 관한 實像을 본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言論이 指向해야 할 目標은 쉽게 부각될 수 있다고 본다.

南北韓의 言論人交流를 通해서 우리가 確實히 깨달게 된 事實은 北韓의 言論은 黨과 國家의 철두철미한 代辯人이며, 선동 선전의 役割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言論은 우리의 言論과 根本적으로 다르다는 點이다.

이러한 與件아래서 우리言論의 内部構造 改革과 言論人意識構造를 改鑄해서 北韓의 言論과 對抗해야 한다는데는 異論의 여자가 없다. 우리의 言論은 상업주의 바탕위에 存在하고 있다. 우리의 言論이 北韓처럼 自由競爭이 없고 오직 國家나 黨의 宣傳役割만을 담당할 때 言論은 그 存立自体를 위협받기 때문에 結局 國家的現實과 言論이 位置한 現實과의 接觸이 不可避하다는 結論이 나온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北韓의 言論과 對決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方案을 제시해 볼 必要가 있다.

(1) 言論은 國家非常時나 國家政策의 큰 變化가 不可避할 때에는 國家의 한 機能인 心理戰의 手段으로서 役割을 담당해야 할것이다. 이 경우에 政府는 一方的인 強要만 할것이 아니라 國家가 屢한 어려움을 事전에 說明하고 友情어린 協力을 바라는 言論과의 對話가 必要하다.

(2) 北韓관계를 專担하는 内外通信이 우리가 北韓의 實情을 단편적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것 처럼 北韓에 관한 實情을 올바르게 理解하고 우리體制의 優越성을 比較判斷할 수 있는 北

韓問題를 專門的으로 다루는 特殊 日刊紙의 創刊이 必要하다.

이 新聞은 全額 政府가 出資하고 文公部와 中央情報部가 그 發行 製作을 主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現在 內外通信을 발 전적으로 解体해서 前記한 特殊 紙로 전환. 政府 各機關은 勿論 言論機關 學校 其他 重要機關에 베풍 北韓의 弱점을 캐내고 우리体制의 장점을 啓蒙할 必要가 있다.

(3) 또 앞으로 機會가 있을런지는 알 수 없으나 北韓의 記者들 이 南韓을 訪問 할때는 政策的으로 그들에게 韓國의 新聞社나 放送局을 보여주고 우리言論의 特性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참다운 言論이란 어떤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또 北韓에 다녀 온 우리 記者들이 보고 들을것을 소상하게 說者들에게 알려 우리 的 強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4) 現役言論人에 對한 定期的인 北韓에 關한 教育이 必要하다.

우리는 現在 北韓에 對해 잔념적으로만 把握하고 있기때문에 反 共教育이 必要하다.

(5) 지금까지의 對北放送內容은 改編되어야 한다. 現在까지 우리 的 對北放送은 共產主義의 모순 金日成에 對한 人身攻擊 共產主義 社會의 非人間性과 虛構性을 強調해왔기 때문에 大韓民國 國民들어 게는 관심을 끌지 못래온것도 事實이다. 이런점을 감안할때 對北 放送은 우리國民들이 우리体制가 훨씬 좋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뿐만 아니라 北韓國民에 對

해서도 說得과 啓蒙을 할 수 있는 次元에서 事前에 차밀한 計劃 아래 進行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우리는 KBS.MBC.TBC.DBS.CBS 등 모든 國民放送의 製作 專門家로 構成되는 協議體를 構成하고, 이 協議體 아래 對北放送內容을 위한 研究 팀을 두는것도 考慮해볼만 하다.

또 지금까지는 對北放送에 商業廣告 스폰서가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도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優秀한 廣告 스폰서를 붙이면 우리 商品의 宣傳도 될뿐아니라 우리의 国力도 北에 대해 誇示할 수 있을것이다.